

경직된 원유가 결정구조 명확한 통계 근거한 연동제로 풀어야

이 회 영
축산신문사 차장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번지며 난항을 거듭하던 원유가 협상이 지난 8월 16일 협상테이블이 열린지 56일만에 결국 정부의 중재안인 기본원유가 130원 인상안을 생산자와 수요자가 받아들여 전격 타결됐다. 이후 낙농진흥회는 같은 날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기본원유가 인상안 및 체세포 인센티브 조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원유가 협상은 지난 2004년과 2008년 원유가 협상과 달리 이번 협상은 이상기온과 FMD 등으로 인해 지난 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유부족사태까지 겹치면서 원유가 협상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협상테이블이 마련된 낙농진흥회에는 협상이 열릴 때마다 수십명의 신문, 방송의 취재진이 몰려와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원유가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납유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으며 우유생산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목전에 두고 전격 타결이 이뤄짐에 따라 낙농업계는 평시체제로 돌아오게 됐다.

다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 생산자와 유업체간의 갈등은 물론 납유거부 투쟁 과정에서 받은 낙농가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숙제는 남아 있다.

또한 원유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유제품 가격은 물론 우유를 원료로 하는 각종 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자칫 이에 따른 비난의 화살이 낙농업계로 되돌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 소비자 홍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유가 130원+ α 인상에 따른 농가 수혜는

기본원유가격이 130원 인상됨에 따라 낙농가들은 8월 16일 생산된 원유에 대해 인상된 가격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기본원유가격은 704원에서 834원으로 상향조정 됐으며 유지방과 체세포, 세균수의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최대 1,015.28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해 평균 수취가격이 852.32원으로 기본원유가격에 148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감안하여 인상된 기본원유가격을 적용하면 평균 982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가 23.69원에서 47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평균 8원의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평균 980원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 상향 조정에 따라 2등급을 받아온 농가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153원까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체세포 1등급과 2등급의 인센티브 가격차가 4.5원으로 좁혀짐에 따라 체세포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산차가 높은 잣소들을 조기도태 시키던 관행에서 벗어나 산차를 보다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평균 도태 산차인 2.9산도 늘어나고 산차가 늘어남에 따라 두당 산유량도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원유가 협상 어떻게 진행됐나

이번 원유가 협상에서는 4번의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14번의 소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벌이면서 난항을 거듭하던 협상테이블도 막을 내리게 됐다. 원유가 협상은 지난 5월 18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기본원유가격을 조정키로 하고 낙농경영안정 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7월 31일까지였던 소위원회 운영기간을 8월 5일로 다시 9일로 10일 오전 4시까지 3차례 연장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타결시까지로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3일에는 낙농가들이 전국적으로 집유 거부 투쟁을, 10일에는 사상 초유의 납유거부 투쟁이라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14번의 소위원회 중 9차 회의까지는 공개 회의로 진행됐으나 실질적인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된 10차 회의부터 시작됐다는 평가다. 10차 회의부터는 생산자와 유업체가 원안으로 제시한 173원과 41원 사이에 몇 번의 가격 협상이 이뤄졌으며 진흥회가 103원과 119원의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결국 정부가 제시한 130원에 플러스 알파로 타협점을 찾았다. 더욱이 8월 12일에는 양측이 더 이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으나 16일 정부 중재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됐다.



협상 과정의 문제점은

원유가 협상을 위한 낙농진흥회 목장경영안정소위원회의 최초 운영기간은 7월 31일까지 41일이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위원회 운영기간도 4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하며 결국 무기한 협상이 돼 버리는 등 몇 차례나 마지막 협상이라는 원칙마저 수시로 변경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번 원유가 협상에서는 원유가격결정 기구인 낙농진흥회의 역할 부재도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2004년, 2008년과 달리 납유거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 원유가 협상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극단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협상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유가 인상 협상 왜 힘든가

정부가 고시하던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 출범 이후 낙농진흥회가 가격결정 기구로서 민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원유가 인상을 위해서는 사료가격 등 생산비가 5%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가격인상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낙농진흥회의 협상 개시 조건이 충족돼야만 한다.

이 같은 요건 때문에 원유가격 인상은 그 요인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3~4년에 한 번씩 협상을 벌여야만 한다. 그래서 원유가격을 한 번 올릴 때마다 낙농가들은 최대한 높게 제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언제 다

시 원유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업체 역시 원유가격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릴 경우 유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 감소의 우려 때문에 가능한 낮은 수준에서 인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원유가격 협상시마다 낙농가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만 하고 유업체들은 이를 방어하고 나서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협상 테이블의 문제는

원유가격 조정은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그런데 이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 협상을 벌일 경우 매우 다양한 의견을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과정을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소위원회를 통해 원유가격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소위원회 구성원이 생산자와 수요자 직접적인 당사자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로 1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정부가 중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은 지난 2번의 인상과 달리 물가 안정이라는 변수가 협상 테이블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

지난 2008년 원유가 인상 이후 유업체들이 일제히 제품 값을 인상한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 인상폭 조정을 더욱 어렵게 했다.

원유가 협상 이대로 좋은가

이처럼 원유가 협상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협상시마다 제기되는 개선 방안이 원유가격연동제다. 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원유가격을 조정하자는 것인데 매년 도입하자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번번히 합의에 실패하며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격 변동 요인이 5%가 돼야만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는 요건도 너무 경직돼 있어 이를 하향 조정하거나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원유가 협상시마다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산비 통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명확한 근거만 제시된다면 협상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